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CCTV 설치 안돼 차량 34대 한꺼번에 털렸다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하룻밤 새 주민들의 승용차 등 차량 34대의 창 유리가 부서진 채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형 평수의 새 아파트인데도 지하 주차장 안에는 CCTV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새벽 1시~4시까지 3시간여 동안 광주시 북구 운암동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김모(45)씨의 오피러스 승용차 등 고급 승용차 34대가 한꺼번에 털린 채 발견됐다. 김씨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더니 운전석 뒷문 창 유리가 깨져 있고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모두 3곳으로 101동~104동, 105~106동, 107동 지하에 각각 한 곳씩 있다. 피해 차량 대부분은 오피러스·렉서스·

포렌스·제어맨 등 고급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은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2대를 턴 뒤 105~106동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 14대를 털었으며, 또 다시 101동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병행해 저지른 뒤 달아났다.

피해품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과 디지털 카메라 등이며 이날 피해금액만 1천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인은 특히 3시간 만에 차량 34대를 터는 대담성을 보였으며, 지하 주차장 입구에만 CCTV가 설치된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N아파트에 CCTV가 설치된 곳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지상 정문과 후문 등 5곳. 경찰은 차량 뒷문 유리창 15cm 높이의 고무밴드 부분에 공구를 넣어 창 유리를 깨트린 뒤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쳐



뒷 좌석 창문이 깨진 채 털린 피해 차량.

간 점으로 미뤄 전문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 썩이 달린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는 170cm의 키에 마른 체형의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또 현장 감식결과 단독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동종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1시14분께 동구 학동 K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주차돼 있던 소나타 차량의 뒷창문을 부수고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는 등 승용차 4대의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 남성이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피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차량의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도록 창문을 파손시킨 점 등으로 미뤄 전문 차량 탈이범으로 추정하고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턴기자 이충행 기자 golee@

절도범 잡은 '호빵 한조각'

광주동부경찰, 유전자 감식 의뢰 30대 검거

"호빵 조각 하나 남겼을 뿐인데..."

미공에 빠질 뻔한 도심 절도사건이 절도범이 먹다 남긴 호빵 한 조각 때문에 깨끗이 해결됐다.

절도전과 5범인 김모(36·광주시 광산구)씨는 지난 1월 11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A성형의과병원에 침입했다. 건물 옥상을 통해 3층 병원 내부로 침입한 것이다. 김씨는 컴퓨터와 카메라 등 250여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1층 출입문이 잠겨있자 하루밤을 건물안에서 지냈다. 김씨는 건물주가 다음날 오전 문을 여는 순간 빠져나왔다. 절도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지만 침입 흔적도 지문도 없

었다. 단서는 딱 하나. 범인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통 안의 호빵 한 조각.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심정으로 호빵 조각을 국과수에 보내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했다.

범인의 침이 묻은 호빵은 결정적 단서가 됐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7월 동구 황금동 사무실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김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유전자가 호빵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동부경찰 김병국 형사과장은 "작은 단서도 그냥 넘기지 않았던 형사들의 집요함 때문에 사건해결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인턴기자 ahj@kwangju.co.kr



광주·전남 15개 경찰서 앞서

경찰청장 파면 촉구 1인 시위

광주·전남 진보연대가 11일 광주와 전남지역 15개 경찰서 앞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진보연대는 이날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전남지방경찰청·광주 동부·서부·북부경찰서 등 6곳에서, 전남지역은 목포·여수·순천경찰서 등 9곳에서 각각 1인 시위를 거쳤다.

이들은 '국민사냥꾼 어청수를 파면하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들고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진보연대 측은 이날 광주·전남 등 전국 170여개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진보연대는 13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경찰청장의 파면과 경찰기동대의 해체를 요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시행 등과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상 최고가 원산지와 식육 종류(한우·육우)를 고의로 속여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음식점 원산지 허위 표시 26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날 8일부터 7일까지 한달 동안 광주·전남지역 8천799곳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를 단속한 결과 허위표시 22건, 미표시 4건 등 모두 2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수입 국가명 허위 표시가 13건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한 경우가 4건 ▲수입육을 혼합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경우가 2건 등이다. 장성군 등 일부 지역은 허위표시 10.8정기적인 차량 점검이 이뤄져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원표시해 판매하다 형사입건됐다.

농관원은 오는 9월 말까지 100㎡ 미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계도단속을 한 뒤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나설 계획이다.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식약청과 각 시군 등과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상 최고가 원산지와 식육 종류(한우·육우)를 고의로 속여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충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홍보 자전거 대장정

임진각까지 400여km의 자전거 대장정을 통해 '2008 광주·전남방문의해'를 홍보하게 된다.

광주, 전남북 등 호남지역 7개 대학 대학생 500여명이 11일 오전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광장에서 자전거 국토대장정 발대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영남지역 학생들과 합류해

이들은 '국민사냥꾼 어청수를 파면하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들고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진보연대 측은 이날 광주·전남 등 전국 170여개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연이은 폭염에 차량 화재 잇따라

광주 이틀새 4건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승용차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35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해 전기가 잘 켜지지 못한 차량의 엔진부위가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새벽 0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J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박모(38)씨의 승합차 엔진 부위에서 갑자기 불이 켜져 연이은 화재의 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도로에서 운행중이던 김모(47)씨의 승합차 엔진 부위에서도 불이 나 12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3시께 광산구 동광산매장 도로에서 운행중이던 노모(49)씨의 승용차 엔진에서도 갑자기 불이 났고,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께 담양군 대전면 북광주IC 인근에서 최초(30)씨의 승합차에서 불이 나 130여만원의 피해를 입는 등 10일부터 이틀동안 4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광주시소방본부가 추산한 엔진 과열 차량 화재는 지난 2006년 12건에

서 2007년 1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차량피해도 2006년 1천600여만원에서 2007년 4천1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광주시 북구 D카센터 신장훈(38)사장은 "오래된 차량의 경우 엔진오일이 새면서 운행 중 높은 열에 의해 화재가 나거나 배터리 터미널이 느슨해지면서 외부의 높은 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엔진 오일 등 정비 업체 잘 닦아줘야 하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상기자 kps@kwangju.co.kr

부동산 판매의 지부! T.062)227-6666

대중법률경매(주)

011-646-2226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총	감평가	최저가	위치
동구	신수동	328/773	4층	4억2천	3억9천	신수2가거리 부근
	신수동	148/257	4층	2억9천	1억9천	광주역 0.5km
	금곡동	274/1078	5층	19억	5억4천	대우빌딩 맞은편
서구	대동동	128/204	3층	4억8천	2억9천	389호동 맞은편
	화양동	580/259	6층	14억	7억9천	화양역 100m
	화양동	1128/2185	4층	18억	11억	화양역 100m
남구	백산동	100/132	2층	2억2천	1억2천	대우빌딩
	백산동	828/673	4층	8억9천	3억	백산역 100m
	안남동	413/830	4층	9억2천	5억2천	신림역 앞
북구	신림동	188/774	4층	9억	1억9천	신림역
	문흥동	194/298	3층	2억8천	1억9천	문흥역 100m
	문흥동	294/585	4층	4억9천	3억	문흥역 100m
광산구	송암동	979/785	3층	11억	4억2천	송암역 500m
	대동동	637/1697	4층	18억	7억9천	대동역
	남산동	1322/205	4층	4억2천	2억2천	남산역
나주	남광동	833/288	단층	2억9천	1억2천	남광동
	대동동	824/919	단층	3억9천	1억9천	대동동
	대동동	1282/513	단층	1억2천	6천	대동동
화순	화순읍	92/70	단층	1억2천	8천	화순읍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총	감평가	최저가	위치
동구	동광동	112/78	2층	1억9천	1억2천	동광동
	백산동	168/110	2층	1억2천	1억	백산동
서구	신수동	154/73	2층	1억2천	1억	신수동
	백산동	142/166	2층	1억2천	1억	백산동
남구	화양동	112/116	2층	8천	5천	화양동
	화양동	139/142	2층	9천	1억	화양동
북구	화양동	578/105	2층	8천	5천	화양동
	주암동	127/84	2층	6천	5천	주암동
광산구	백산동	107/184	2층	8천	5천	백산동
	대동동	317/288	2층	2억	1억2천	대동동
나주	대동동	194/140	2층	3억2천	2억2천	대동동
	대동동	131/136	2층	2억	9천	대동동
화순	신수동	597/428	2층	9억	1억9천	신수동
	신수동	191/182	2층	8천	8천	신수동
나주	신수동	198/158	2층	4억2천	2억2천	신수동
	신수동	182/70	2층	4천	2천	신수동
담양	대동동	512/213	2층	2억3천	1억2천	대동동
	신수동	453/152	2층	6천	6천	신수동
영광	대동동	1823/145	2층	7천	7천	대동동
	대동동	178/102	2층	1천2천	1천1천	대동동
장성	신수동	628/137	2층	3천	3천	신수동
	신수동	886/214	2층	5천	5천	신수동
화순	신수동	221/110	2층	8천	8천	신수동
	신수동	379/229	2층	9천	9천	신수동
화순	신수동	246/112	2층	8천	8천	신수동
	신수동	638/199	2층	3천	3천	신수동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총	감평가	최저가	위치
동구	백산동	245/946	6층	11억	5억2천	백산동
	신수동	188/523	4층	3억9천	2억2천	신수동
서구	백산동	212/907	2층	2천	1억9천	백산동
	대동동	215/498	3층	4천	4천	대동동
북구	대동동	217/409	2층	1천	1천	대동동
	대동동	235/536	4층	3천	2천	대동동
광산구	대동동	213/433	3층	2천	2천	대동동
	대동동	213/433	3층	2천	2천	대동동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총	감평가	최저가	위치
동구	신수동	347/870	5층	7억	3억2천	신수동
	신수동	215/588	4층	3억4천	1억9천	신수동
북구	대동동	809/2558	6층	28억	12억	대동동
	대동동	809/2558	6층	28억	12억	대동동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총	감평가	최저가	위치
동구	신수동	1292/217	18층	11억5천	11억5천	대동동
	신수동	1292/217	18층	11억5천	11억5천	대동동
북구	신수동	1458/276	22층	19억	19억	대동동
	신수동	1458/276	22층	19억	19억	대동동
광산구	신수동	8658/280	4층	1억1천	1억1천	대동동
	신수동	8658/280	4층	1억1천	1억1천	대동동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문

건축상담

토지매매

- ▶ 수완지구 333-1(명의변경가능) 60㎡ 대토번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 ▶ 수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문 입구 상업용지 500㎡ m당 190만
- ▶ 광산구 수완동 35㎡ 대토번 자연녹지 1.762㎡ 4.231㎡ m당 70만(분할가능)
- ▶ 광산구 신안동 대지 374㎡ m당 30만원 (건물있음)
- ▶ 광산구 신촌동 광송간대로변 지하철도 앞 상업용지 대지 286㎡ 매가 2억 9,000만
- ▶ 광산구 지정동 전(묘지) 643㎡ m당 28,000원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인접적 부동산, 이동통신인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임대중(평수 다량)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리바게뜨 임점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임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
(광산구 우산동 1605-3 하삼시장) 2단지)

수완지구 4000세대 독점상권

아파트 상가 매매 및 임대

임점시기

2009년 3월 ~ 12월
(지금 준비하십시오)

권장업종

마트/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문구점/ 피자/ 김밥나라/ 청과/ 정육/ 차킨오피/ 떡집/ 건강원/ 안경점/ 편의점/ 학원/ 병원/ 약국

평수

60평/ 40평/ 25평/ 13평/ 9평

매매가

7000만원 ~ 8억2000만원

임대가

3000만원 월세 80만원
2억원 월세 300만원
보증금과 월세 전화 조정 가능함.

대금납부 방법

계약금 지불후 상가 임점시 잔금납부, 용자가능함.
방문상담 환영합니다